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과제책임자 김은지 연구위원 (Tel: 02-3156-7104 / E-mail: kimeunji@kwidi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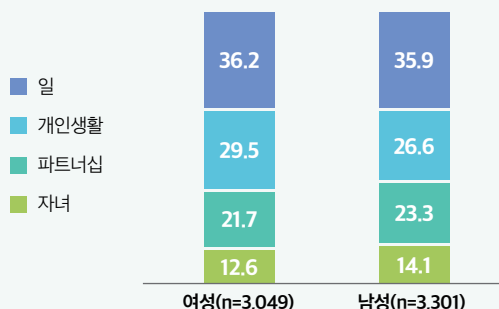
청년세대 생애전망에서의 남녀 차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초록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전망에 대한 젠더분석에 기반하여 당사자 감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결과, 청년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제도가 전 생애 생존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 단위로 생존'할 수 있는 '노동중심적 생애'를 기획하고 있음. 청년여성들에게 결혼, 자녀갖기는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서, 청년여성들은 파트너가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나눌 때에만 자녀갖기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청년남성들 또한 불안정한 삶의 여건들 속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청년들의 생애전망 인식에 비추어볼 때, '개인 단위의 생존과 삶의 균형'에 주목하는 전환이 필요함. 청년여성들의 '노동중심적 생애'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며, 청년남성들의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목소리에 반응해야 함. '개인'을 단위로 사회를 재설계할 때 '가족'이 회복되는 역설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임.

2030 남녀의 '청년기 삶의 과업 중요도 비중' 인식

(단위: %)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2030 남녀의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상위 3순위

순위	여성	남성
1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참여'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2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3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주 : 나의 경제적 준비, 안정적 일, 건강,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시간, 파트너의 경제적 준비, 안정적 일, 건강,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시간, 파트너와의 관계, 파트너의 가사분담, 파트너의 양육참여, 믿을만한 어린이집, 덜 경쟁적 교육제도, 안정적 집,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19개 항목 중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은 순위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1. 저출산 시대, 청년세대의 생애전망 분석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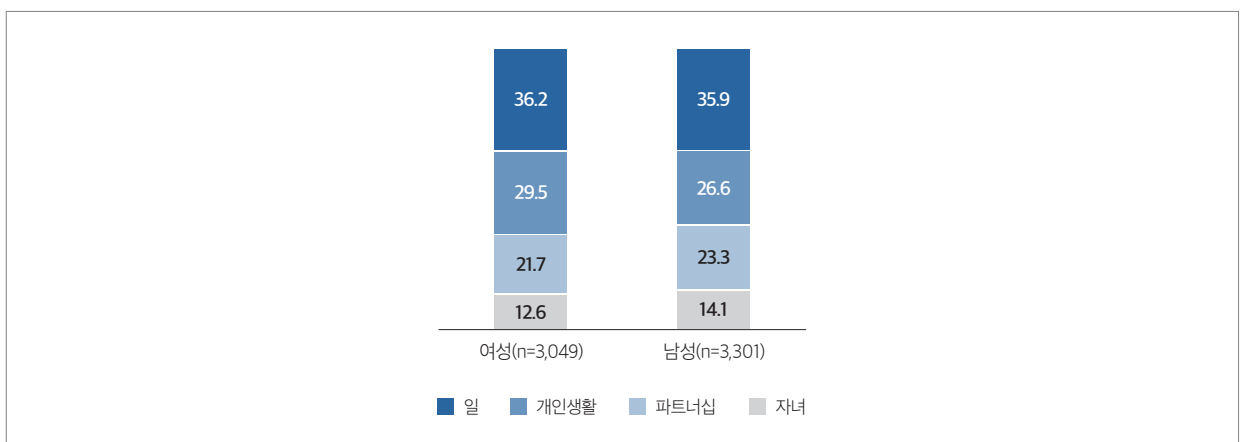
- 기존 연구들에서 최근의 청년세대는 경쟁에서의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된 세대(김홍중, 2009)로 자주 언급되지만, 계층별, 지역별 차이도 목격되고 있음(정수남 외, 2012; 최종렬, 2017). 최근의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젠더 측면의 변화로 보임. 과거 ‘남성의 노동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과정’이 해체되고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이순미, 2014).
-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된 생애전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면, 청년세대, 특히 청년 여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김영·황정미, 2013) 상황에서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김영미, 2016a).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전망에 대한 젠더분석에 기반하여 당사자 감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청년여성, “개인 단위로 생존”할 수 있는 “노동중심적 생애”를 기획하고 있음

- 청년여성들은 더이상 결혼제도가 전 생애 생존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이로 인해 청년여성들은 전 생애에 걸쳐 노동중심적 생애를 유지하는 것을 절박하게 선택하고 있음.
 - ▶ ‘청년기에 중요한 네가지 과업’에 대한 청년여성들의 평가: 일·개인생활에 높은 점수, 파트너십·자녀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이는 청년남성과 동일한 경향

<그림 1> 2030 남녀의 ‘청년기 삶의 과업 중요도 비중’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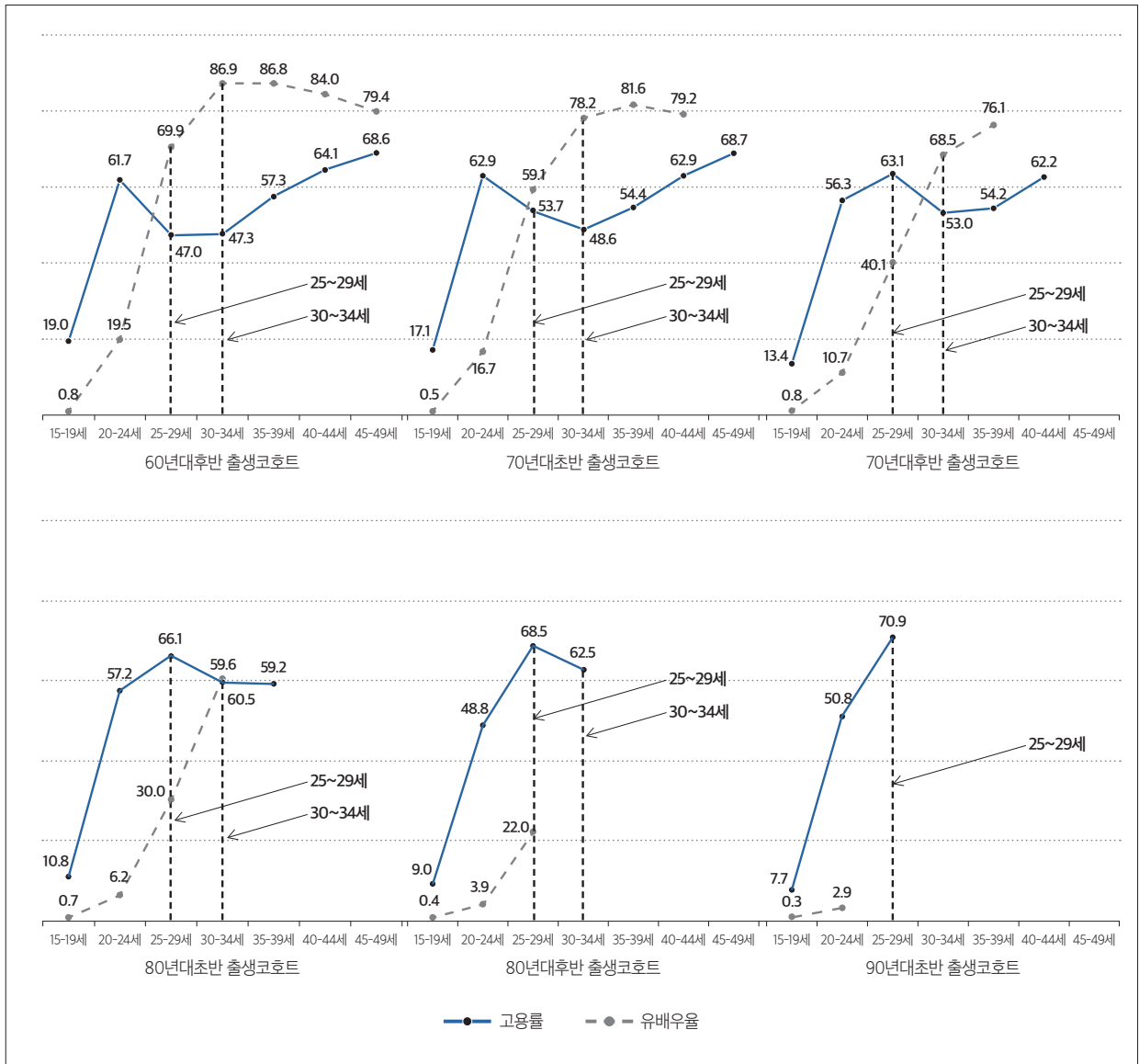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 실제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들의 고용률이 유배우율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여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6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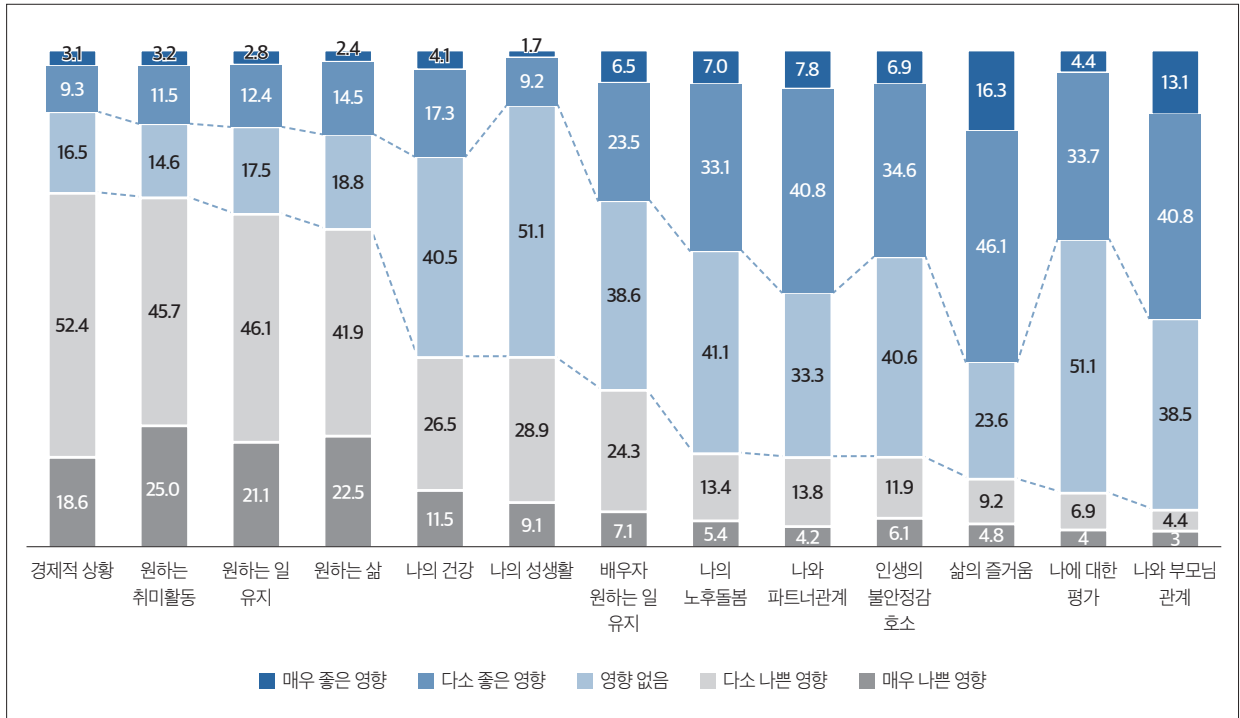


청년여성들은 친밀성 추구 또한 개인단위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을 때 가능한 생애기획으로 인식하고 있음. 청년여성들에게 결혼, 자녀 갖기는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파트너가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면 자녀 갖기는 바로 개인생존을 위협하므로 불가능한 선택이 되고 있음.

▶ 자녀가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해 청년 여성들은 청년남성들보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가운데, '경제적 상황', '원하는 취미활동', '원하는 일 유지', '원하는 삶'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원하는 일 유지'에서 가장 큰 남녀 차이를 보임.

<그림 3> 2030 여성의 '자녀가 삶에 주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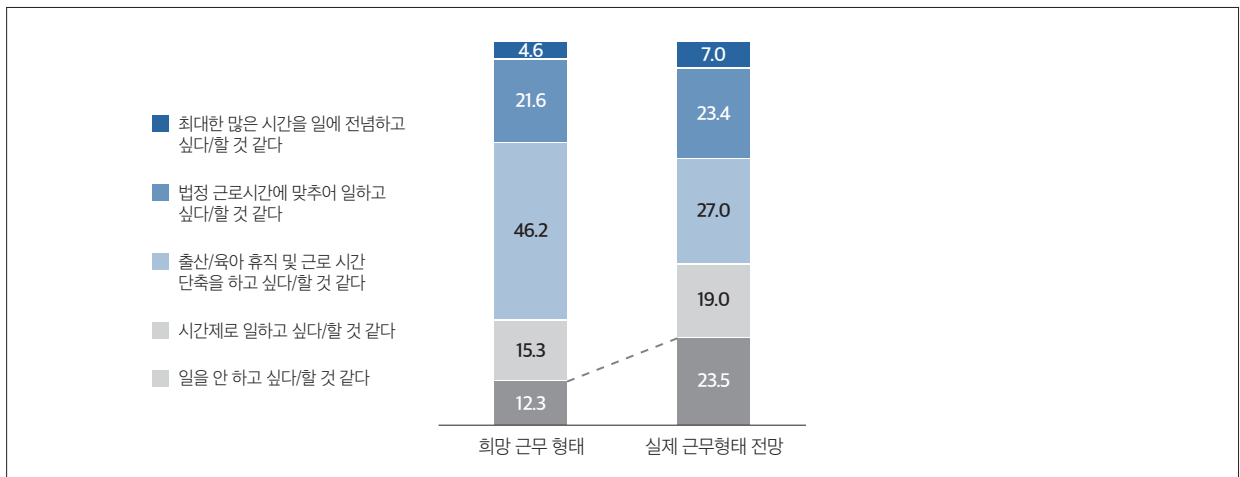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 청년여성들은 자녀를 가진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음.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4> 2030 여성의 자녀를 (더) 가진 후 '원하는 근무 형태' 및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 형태' 인식

(단위 : %)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 ▶ 청년 여성들은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중 ‘파트너의 양육참여’, ‘공평한 가사부담’,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상황이나 여성 자신의 일가족양립여건보다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임.

<표 1> 2030 남녀의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상위 10

	여성	남성
1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참여’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2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3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4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안정적인 집’이 있으면
4	‘내’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참여’
5	‘안정적인 집’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6	‘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유연해지면	‘파트너’가 ‘건강’하면
7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8	‘파트너’가 ‘안정적인 일’이 있으면	‘파트너’가 ‘안정적인 일’이 있으면
9	‘내’가 ‘건강’하면	‘파트너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10	‘파트너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유연해지면	‘파트너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유연해지면

주: 나의 경제적 준비, 안정적 일, 건강,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시간, 파트너의 경제적 준비, 안정적 일, 건강,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시간, 파트너와의 관계, 파트너의 가사분담, 파트너의 양육참여, 믿을만한 어린이집, 덜 경쟁적 교육제도, 안정적 집,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19개 항목 중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은 순위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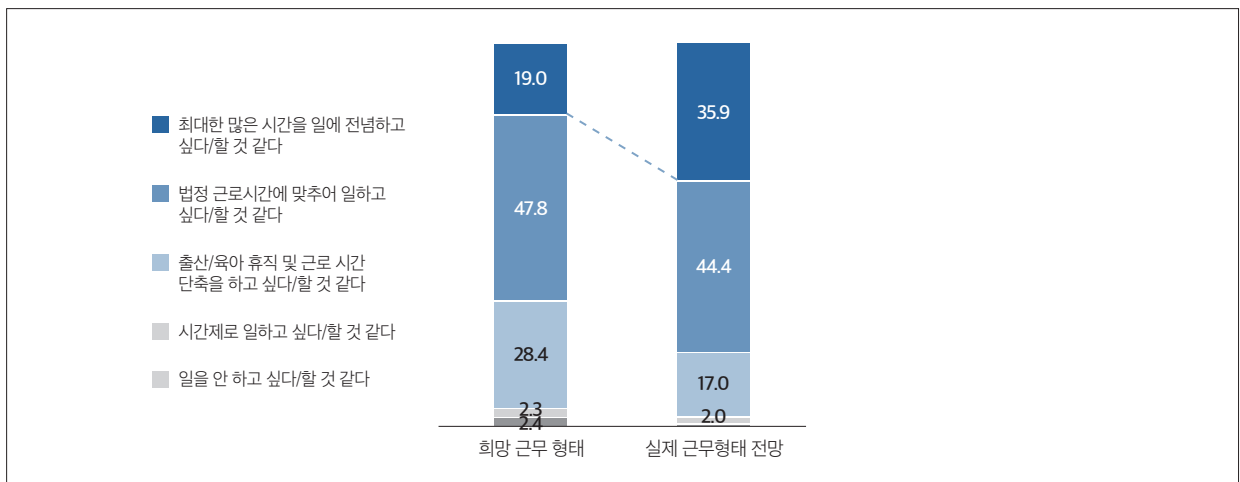
3. 청년남성, 불안정한 삶의 여건 속에서 ‘여성도 함께 일하고, 남성도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모델’ 추구



청년남성들의 결혼, 자녀 갖기는 개인 단위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여성만큼 긴박하게 결혼, 자녀 갖기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음. 그러나 청년남성들도 불안정한 삶의 여건들 속에서 여성도 함께 일하고, 남성도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 청년남성은 자녀를 가진 후에 ‘정시퇴근’하거나 ‘육아휴직’ 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장시간 근로할 것 같다’는 인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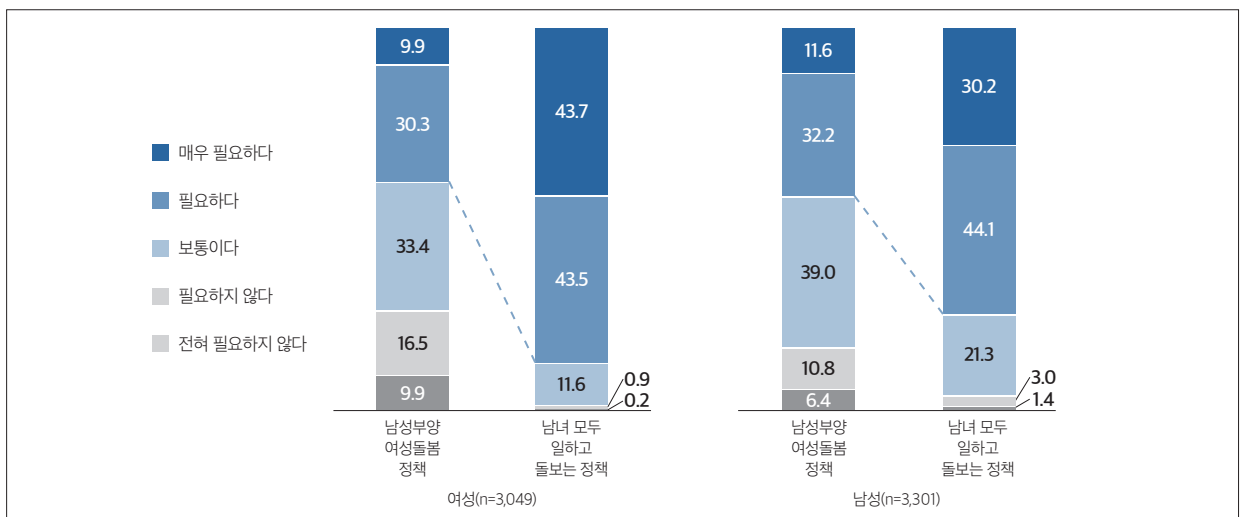
<그림 5> 2030 남성의 자녀를 (더) 가진 후 ‘원하는 근무 형태’ 및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근무 형태’ 인식 (단위 : %)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 청년남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정책방향에 대해 ‘남성이 부양하고 여성이 돌보는 정책’보다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정책’에 압도적 동의를 보여 여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그림 6> 2030 남녀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정책의 정책방향 동의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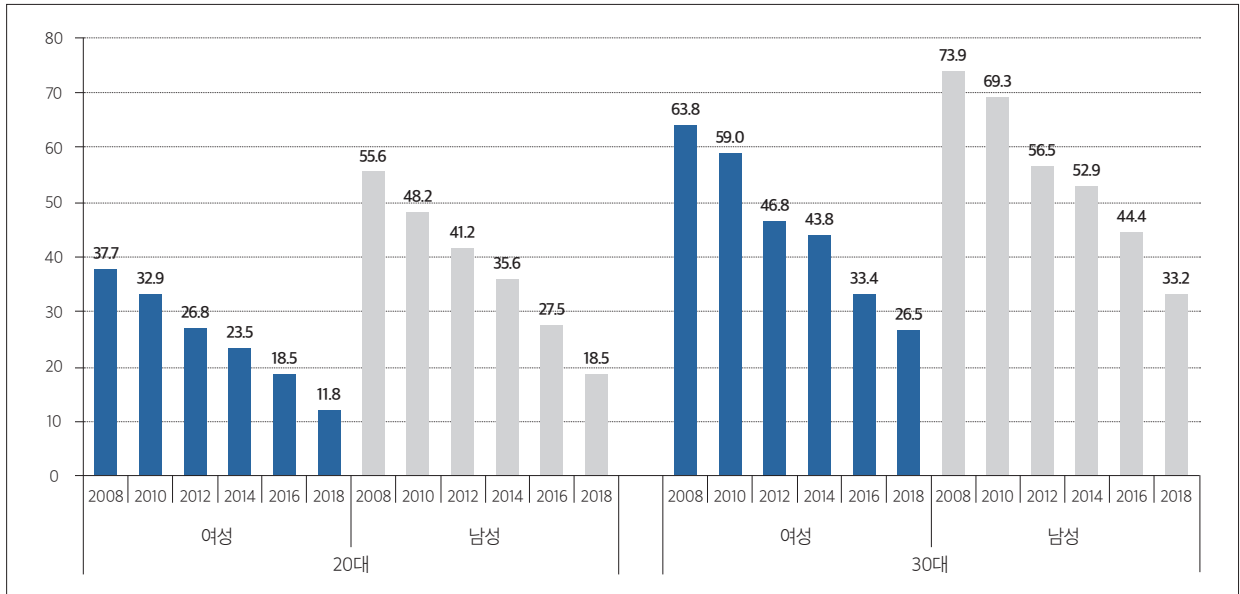


자료 :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 ▶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사는 여성책임’에 동의하는 청년남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해 왔음.

<그림 7> 2030 남녀의 ‘가사는 여성책임’ 동의도: 2008-2018년 사회조사

(단위: %)



주: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항목의 합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4. 정책제언

- ④ 페미니즘이 대중화되고, 경쟁환경에서 합리적 공정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진 현재의 청년 여성들에게 성평등 가치는 내면화되어 있으며, 청년 여성들은 성역할에 기반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 수준에서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성들은 쉽게 출산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김영미, 2016a)을 함축함.

- ▶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개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면, 정책은 여성들의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규범적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 많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들이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가·휴직제도의 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고학력층에서 이용비율이 더 높았음.
- ▶ ‘인생의 혼잡시간대(Rush Hour of Life)(Tremmel, 2009; 김영미, 2016b: 47에서 재인용)’에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고, 친밀성과 관련된 생애구상이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방향으로 보임.



‘결혼해서 많이 낳으라’는 정책메세지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청년세대 생존의식과의 간극

- ▶ [둘째, 셋째 낳으면 지원하겠다?] 한 자녀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가진 청년들에게 셋째자녀 지원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프레임임. 출산율이 1.0도 안 되는 비상상황으로 둘째, 셋째 출산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 한 자녀부터 잘 키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점임.

※ 2030 청년,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보다 ‘첫째부터 모든 아동 지원’에 남녀 모두 높은 지지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 ▶ [낳으면 ‘출산장려금’ 주겠다?] 개개인의 생존을 위협받는 청년세대에 출산 시점의 일시적 현금지원은 아무런 안전망이 되지 못함. 아이에게 드는 기본적인 비용은 아동기 내내 국가가 보장하는 ‘아동수당’으로 부모가 될 청년들의 생존위험을 덜어낼 필요가 있음.

- ▶ [‘난임’은 얼마든지 지원, 그런데 임신중단은 알아서?] 친밀한 관계는 아이가 생길 ‘위험’을 수반함. 아이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않는 시점에 불쑥 나타나 생애기획을 흔들고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그러나 ‘난임’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임신중단은 위험하고, 비난받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전에는 심지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여성에게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는 그 자체로 생존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음. 난임을 지원하는 만큼, 안전한 피임과 임신중단 지원이 필요함. 준비가 되었을 때 키울 수 있도록 생애기획의 결정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음.

※ 2030 여성, ‘임신과 출산이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보다 ‘안전한 피임 및 임신중단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도가 높음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

- ▶ [결혼하면 집 주겠다?] 개인단위로 생존을 사고하는 청년들에게는 개인 단위의 생존에 대한 보장이 먼저 필요함. 현재 청년세대들은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안전한 집 한칸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성폭력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청년여성들의 (열악한) 주거독립은 곧 위험이 될 수 있음. 개인 단위의 제대로 된 ‘생애 첫 주택 지원’이 필요함.



“개인 단위의 생존과 삶의 균형”에 주목하는 전환이 필요, 청년여성들에게 “노동생애”를, 청년남성들에게 “삶의 균형”을 보장해야 친밀성의 단계로 나아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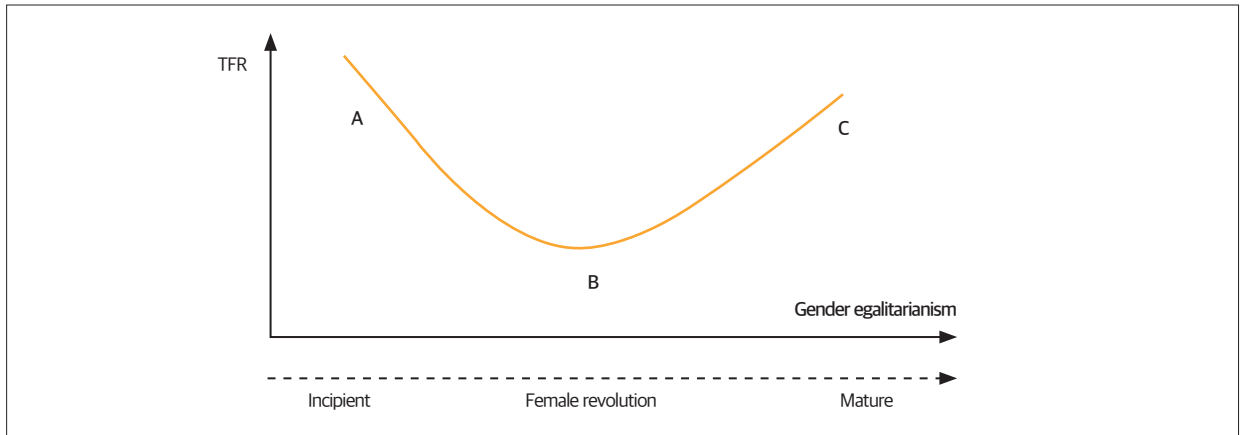
- ▶ ‘회사인간’의 부양을 전제로 한 ‘독박육아’는 개인 단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청년여성들이 택할 수 없는 선택지이며,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청년남성들도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임. 청년여성들의 ‘개인 단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중심적 생애’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며, 청년남성들의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목소리에 반응해야 할 시점임.

- ▶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음.

- 개개인의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 표준 노동시간의 단축
- 집에 지속적으로 누군가 있을 것으로 전제하는 학교시간의 개편
- ‘아빠’로서의 삶의 경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 아동 개인이 어떤 가족상황에서 자라더라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
- 아동 개인의 기본적 양육비용은 국가가 보장하는 아동수당의 확대
- 안전한 피임과 임신중단이라는 성·재생산 건강권의 보장
- 개인 단위의 생애 첫 주택 지원으로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

- ▶ “사회가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균형이 나타나 출산율이 회복된다(Esping-Andersen)”는 서구사회의 교훈, ‘개인’을 단위로 사회를 재설계할 때 ‘가족’이 회복되는 역설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임.

<그림 8> ‘성 역할의 혁명’과 출산율의 관계 도식



출처 : Esping-Andersen & Billari(2015:9)

참고자료

- 김영·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영미(2016a).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사회, 112, 41-74.
- 김영미(2016b).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홍중(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43(5), 1-29.
- 대한민국 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이순미(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2), 67-106.
- 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 최종렬(2017). 복학왕의 사회화: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51(1), 243-293.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Tremmel, J. (2009).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주관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총괄과·성평등기반과·포용돌봄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